

Experience Report (파견결과보고서)

성명	정우진	학과(전공)	원자력및양자공학과
학위과정	학사과정	파견(참여)기간	2023.06.28 - 2023.07.29

1. 출국 전 준비사항

A. 프로그램 지원과정

프로그램은 KAIST측에서 안내한 바를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출국 4개월 전인 2월 쯤에 면접을 진행한다. 면접을 통해 KAIST에서 파견 대상으로 선발 되면, 난양공대에 신청을 하는 form을 작성한 뒤에, 5월에 결과가 발표 된다. 이 후 프로그램 참가비용 1050SGD를 입금하고, 수강신청을 동시에 하는데, 필자는 IE4483 AI & Data Mining을 수강신청했다. 기숙사도 함께 신청하며, KAIST는 Campus Asia 회원 학교이기 때문에, 별도의 기숙사비는 내지 않아도 된다. 제공되는 링크를 따라 건강설문조사와 수강 신청 등을 완료하면 된다.

B. 파견 대학에서의 안내

난양공대에서 제공된 Summer GEMT programme 홈페이지에서 모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도착하기 2일 전에 기숙사 배정 메일이 오는데, 해당 기숙사를 잘 숙지하고 알맞은 hall office(사감실)에서 기숙사 방키와 함께 기숙사를 배정받게 된다. 이후 NTUlearn이라는 사이트에서 카이스트의 KLMS와 같이 수강 과목과 과제, 성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난양공대에 도착한 뒤에 중요한 공지는 대부분 텔레그램 채널에서 이뤄진다.

C. 비자 신청 (비자 유무, 신청방법, 소요기간, 경비)

비자신청은 학교 측에서 Student Pass를 안내하였고, 학교의 안내를 따르면 ICA(싱가포르 외교부)를 통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발급 수수료 30SGD와 발급비 90SGD가 청구가 된다. 하지만, 한국은 90일 이상 싱가포르에 무비자로 체류 가능한 국가기 때문에, 필자와 같이 90일 이내의 course로 다녀 온다면, 그 ICA-ICP student pass(외교부 학생비자)는 필요없다. 필자를 비롯한 한국 학생은 결국 ICP에 방문해 90SGD씩 환분을 받았다.

D. 항공권 구입 및 비용

항공권의 경우, 인천공항 → 싱가포르창이공항 행의 저가항공인 T'way를 이용해 자정 00:30에 도착하는 항공권을 구매했으며, 총 비용은 약 230,600원의 매우 저렴한 가격이나, 부치는 짐 중량제한이 15kg

이기 때문에 매우 짐을 적게 가져가야한다. 또한 자정에 도착해 공항에서 노숙을 진행하여 경비를 최소화 하였다.

돌아오는 항공권의 경우, 필자는 가족이 현재 호주에 거주 중이라, 한국이 아닌, 저가항공인 Air Asia X 를 이용해 쿠알라룸푸르를 경유한 뒤 411,400원에 싱가포르에서 시드니국제공항으로 이동했다.

E. 보험 가입 방법 및 비용

보험은 삼성 학생보험을 들었다.

F. 수강신청 (강의 수강도 함께한 경우) / 연구실 배정 (연구 참여 프로그램인 경우)

수강신청은 한국에 있을 때 지원서류와 함께 진행하고 이후 추가적인 신청은 필요없다.

2. 학업 관련 (A. 강의수강과 B. 연구참여 중 해당되는 것으로 작성)

A. 강의 수강 (수업 환경, 수업 내용, 수업 방식, 과제, 시험, 강의 평가 등) - 자세히 기재해주세요

수업은 The Arc라는 강의실이 모여있는 건물에서 진행하며, 에어컨이 매우 잘 나온다. 코딩을 함께하는 AI와 Datamining을 수강했기에, 노트북을 늘 지참하고 다녔으며, 교수님의 ppt가 3시간, 1시간은 google colab의 시연을 병행했다. 교수님 2분께서 수업을 진행했으며 전반부 2주는 Data mining에 대한 수학적 접근, 다양한 모델에 대한 결정트리 그리는 법에 대해 배웠으며, 후반부 2주는 AI에 대해 배웠다. Data mining은 비교적 자세히 배웠지만, AI는 원론적인 부분(back propagation, convolution 등)을 주로 배웠다. 과제는 Long term project로, 유명한 문제(titanic survival, estate estimation)중 택 1 하여 코딩하고 제출하는 형식이다. 시험은 Quiz와 Final term 2회 있었다. Quiz는 간단한 decision tree를 그리는 문제와 association rule의 간단한 증명이 있었고, final term은 생각보다 방대한 범위로 이뤄져 어려웠다. 하지만 둘 다 cheating paper를 1장씩 쓸 수 있어서 외우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진 않았다.

B. 연구 참여 (연구 환경, 연구 주제, 연구 방식, 연구 결과 등) - 자세히 기재해주세요

C. 학점 인정 (해당될 경우)

학점 인정은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와 인공지능개론을 인정받고자 한다.

3. 비용

A. 기숙사 (숙박)

기숙사비는 없었다.

B. 식사

학식으로 해결하면 보통 한 끼에 7SGD이내, 음료수의 경우 5SGD, 컵과일은 2SGD이다. Pioneer역의 로컬식당(호커센터)에서는 10SGD에 먹을 수 있지만, 시내에서 먹으면 인당 약 30~40SGD로 매우 비싸다.

C. 기타 생활비

이발비는 15SGD이나, 영어로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면 이상하게 깎아준다.

교통비는 1주일에 평균 20SGD정도이며, 지하철과 버스가 매우 싸다.

4. 학교 캠퍼스

A. 학교 안 시설 및 분위기

운동할 수 있는 헬스장이 있으며, 트랙과 수영장도 있다. 도서관은 매우 공부하기 좋고 쾌적하지만, 운영시간이 오후 7시까지라 오래 있지 못한다. 학교가 매우 크고 비가 자주오며 덥기 때문에 걷기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편하다.

B. 주변환경 및 분위기

시내와 멀기 때문에 비교적 조용하고 어둡다. 하지만 안전하다.

C. 그 외 사항

편의점이 있고, KAIST에는 없는 KFC와 스타벅스, 맥도날드가 있다.

5. 언어 사용

필자는 영어가 익숙하여 큰 문제가 없었지만, 어르신이나 로컬식당에서 주문할 때는 singlish(싱가포르식

영어)를 사용하기에 알아듣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중국어 또한 매우 많이 사용하지만, 필수 생활 중국어를 습득하면 적응된다.

6. 기숙사/숙소 이용(입실/퇴실 시기, 주의사항 등)

기숙사는 에어컨을 어플을 설치한 뒤 카드로 충전해서 원격제어가 가능하다. 저층의 경우 개미가 많으니 조심하자. 입실은 최초 도착일 아침 9시 부터였고, 퇴실은 자유롭게 정해진 post box에 양식을 따라 열쇠를 반납하면 된다.

7. 학교 생활

대체로 도서관이 일찍 닫아 저녁이 넘어가면 할 것이 없어진다. 필자는 보통 학교 앞에 있는 공공트랙에서 조깅과 런닝을 룸메이트와 즐겨했으며, 주간시간에는 주로 도서관에서 책을 읽곤 했다. 학식이 매우 다양하고 저렴하며, 맛있다. 특히 한식도 있기 때문에 음식이 입에 맞지 않더라도 편하다.

8. 교환학생 지원 서비스 & 교환학생에 대한 관심도

교환학생이 불편함을 겪거나 비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도와주며, 아플 경우에도 의무실에서 치료를 해준다. 특히 교환학생끼리 잘 뭉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많아 쉽게 친구를 사귄 수 있다.

9. 동아리 등 교내·외 활동

동아리는 없었다.

10. 여행 등 개인 활동

여행은 센토사, 시내가 대표적이며, 주변의 조호르바르(말레이시아)도 좋다.

11. 그 외 도움 되는 정보 및 주의사항

비자 발급만 받지 않는다면 좋을 것 같다. 방에 개미가 자주 출몰하여 방안에서 식사는 하면 안될 듯 하다. 또한 시내에서 밥을 먹을 경우, 메뉴판 가격에 8%의 세금과 10%의 서비스 차지가 붙기 때문에 가격 계산을 잘 해야된다.

12. 파견 소감

귀중한 경험이 되었고,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과 스스럼 없이 지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좋은 추억이 되었다. 나는 나름 보수적인 편이었는데, 많이 개방적으로 바뀌었고, 교수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서 수업도 재밌게 들을 수 있었다.

13. 사진 첨부

ASEAN Night에서 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모습



내가 주로 공부할 때 있었던 The hive

